



光武二年三月  
八日  
農商工部認可

# 皇城新聞

每日刊行  
第一卷  
第七號

## 論說

○漢北木犀山下에 一  
窮措大가 有호니 自稱  
은 狂夫오 人謂호되 傑  
士라 其磊落호는 心을 世  
路에 牽碍치 아니하디  
니 一日은 其友人을 對  
호야 時事를 略評호다  
가 喟然이 起호야 書案  
을 擊호야 曰吾四十年  
生에 所經을 迴想호니  
一笑一歎이 오 一快一  
樂이라 今에 其所然을  
說明호리니 請君은 試  
聽하라 吾十歲에 入學  
하야 廿四에 至도록 讀  
바는 經史오 作호는 八  
는 科文이라 一代儒林  
에 聲名을 敢恃하고 百  
試場屋에 風雨를 不避  
하엿드니 功名이 數가  
有호므로 歲月에 欺호  
을 見하야 十年에 工夫  
가 一笑만 餘하엿도다  
於是에 紅塵에 顔이 汗  
호고 碧山이 夢에 甘하

야 短簡敗篇을 片舟에 載호고 白雲流水에  
佳鄉을 尋하야 栖身이 便宜호을 得하디 閑  
情을 微遊호는 디 寄호엿더니 奈之何로 世  
情이 忽地에 變호야 人心이 潮又 起沸호디  
니 八域東徒가 亂萌을 起호야 一場化翁의  
劇戲를 成호니 餘生의 計活이 一歎을 作호  
엿는디 此時는 即甲午十月也 皇天이 我邦을  
眷顧하샤 維新히 天命을 下하시니  
大皇帝陛下의 巍蕩하신 聖德이 自主獨立  
에 鞏固호는 基礎라 然호므로 迴恩門石柱에  
霹靂이 初降호고 三田渡碑閣에 灰塵이 輕  
飛호야 幾百年丙子의 耻가 一帶水漢江이  
平流호니 我國에 世子가 되야 엿지 一快치  
아니리오 是로 由하야 奮發호는 心이 一層  
이 更高호야 舊日章句의 學問은 塵垢囊에  
付호고 近世開進호는 文字로 返照鏡을 作  
하엿스니 其蘊奧는 盡得치 못하엿스나 其  
糟粕은 可히 聞하엿다 云호지라 然호므로  
國步에 前進호을 日노 希望호엿더니 花開  
에 風多하고 水流에 石激호야 中間에 些少  
瑕疵가 無하디고 是謂치 못호지라 所以로  
一國臣民이 忠君愛國호는 日尙 開明進  
步호는 向方으로 二千萬口生命을 代標하  
야 五百年  
宗社를 保護코저 一大會를 獨立門傍獨立  
館에 設하디 曰獨立協會라 日曜를 每當하  
디 討論을 例開하디니 陰曆七月十六日은

우리

大韓開國紀元慶節이 同月二十五日은  
大皇帝陛下에 誕降호신 聖節이라 本會에  
서 獨立館前에 慶宴을 開호고 內外國紳士  
을 請호야 慶祝호는 本意를 表호는 디 梨園  
風樂은 聖恩을 報答호고 校員祝辭는  
邦箴을 贊頌호니 旗上太極은 萬邦에 同等  
이오 門楣 睿筆은 一國에 生光이라 碧  
嵩三疊으로 太平萬世를 開호여스니 吾亦  
化域中 一氓이라 엿지 一樂이 無하리오 然  
호故로 我는 此世에 生하야 此世를 享호을  
大幸 줄노 知하노라 其友人이 笑而答하  
야 曰君言이 是矣라 호디라

## 官報

●九月十一日  
●(宮廷錄事) ○陰曆七月二十五日은  
萬壽聖節  
大皇帝陛下  
明憲太后陛下  
皇太子殿下  
皇太子妃殿下 百官問 安  
答曰知道  
●(官廳事項) ○全羅南道管下牧使府尹  
及郡守治蹟 ○濟州牧使朴用元、匪類는  
截而撫綏向化호며 島民는 賴而安業資生  
호니 大夫政令이 有光前來호 ○務安府尹